

광주비엔날레 감독 선임... 남은 과제는

감독 2인...이견 조율 시스템 필요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4일 제7회 광주비엔날레 내·외국인 공동감독 선임과 조직개편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지난 3월부터 4개월 동안 난항을 거듭했던 감독 선임이 마무리됐지만 사상 최초로 도입한 공동감독제는 광주비엔날레의 위상에 적합한 상체를 낳았다.

특히 공동감독제의 경우 두 감독의 이견을 조정할 내부 조율장치 미흡한데다 조직개편도 인원감축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장기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향후 재단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예술감독 선임이 꼬이기 시작한 것은 감독 선정소위가 추천한 내외국인 감독 후보들이 잇따라 고사하면서 비롯됐다. 우여곡절 끝에 감독 선정소위는 고유권한인 감독후보 추천권을 사실상 포기하고, 감독선임을 이사장과 재단에 일임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일부 이사들이 4일 이사회에서 공동감독 후보 선출방식과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는 등 마치 막까지 진통을 겪었다.

무엇보다 이번 공동감독제는 서로 다른 미학적 관점을 가진 두 사람의 이견을 조율할 시스템이 마련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4일 재단회의실에서 제98차 이사회를 갖고 공동감독 선출 안건과 조직개편안을 심의하고 있다.

'총감독' '감독' 다른 직함...공동감독 취지 의문 학술·연구기능 빠진 조직개편 비전 제시 미흡

되지 않아 전시준비 과정에서 적은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를 남겼다. 실제로 두 감독의 업무권한과 역할 분담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점은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재단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오쿠이 엔위저씨를 '총감독', 신정아씨를 '감독'으로 임명키로 했으나, 총감독 직위의 의미는 공동감독 두 사람 가운데 '선임자'격이라는 애매

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함께 이날 이사회를 통과한 조직 개편안은 비엔날레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기구 설립 등이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재단이 사무국장과 사무총장직을 폐지하고 사무처장직을 신설한 데 이어 팀제를 부서중심제로 전환하는 선에서 조직개편을 일단락했을 뿐, 학술·연구기능을 확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조직개편과정에서 팀장급 이하 직원 5명을 해고함으로써 내부직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강연균 이사는 "비엔날레 발전을 위한 연구와 기획기능을 수행할 학술 연구팀, 기획팀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보완해야 할 사항이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오는 10월3일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행사기간 동안 개최기로 했던 송정리 딱갈비 거리 조성 등 도시공공디자인 사업을 예산 미확보에 따라 취소키로 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한국 감독과 모든 문제 협력"

오쿠이 엔위저 총감독

"우리는 경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협력하기 위해 공동감독을 맡았고 서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모든 문제를 처리할 것입니다."

4일 광주비엔날레 공동예술감독에 선임된 오쿠이 엔위저(45·Okui Enwezor) 미국 샌프란시스코 미대 학장은 신정아씨와 공동감독을 맡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적인 전시기획자로 꼽히는 오쿠이 엔위저 감독은 "95년 창설된 광주비엔날레는 현대미술의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광



주비엔날레가 세계적인 비엔날레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비엔날레가 전세계의 미술을 대변하는 담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 비엔날레가 베이징 올림픽이 개최되는 등 세계의 시선이 아시아로 집중되는 가운데 열리는 만큼 이같은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전시를 기획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대중에게 친숙한 전시 추구"

신정아 감독

"오쿠이 엔위저 감독이 추구하는 미학과 철학적인 개념을 대중에게 친숙한 전시로 풀어내고 싶습니다."

4일 제7회 광주비엔날레 공동예술감독으로 선임된 신정아(35) 동국대 미술사학과 조교수는 비엔날레가 현대미술이지만 대중들이 접근하기 쉬운 전시를 추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 감독은 2006년 광주비엔날레 전시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존 벅닝햄 40주년 기념전, 일본 가나가와 세계 어린이비엔날레 등 국제적인 전시를 기획하기도 했다.

그는 "제7회 광주비엔날레를 전



시 컨셉을 강조하기 보다는 '전시'를 위한 전시'로 치르고 싶다"며 "베니스 비엔날레처럼 주 전시장을 두고 여러 개의 부대전시를 개최,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전시 주제가 드러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적으로 광주비엔날레가 아시아에서 열림으로써 '아시아성'을 띠고 있다고 전제한 그는 "아시아라는 개념을 부각하기 보다는 국제적 감각을 반영하는 전시를 기획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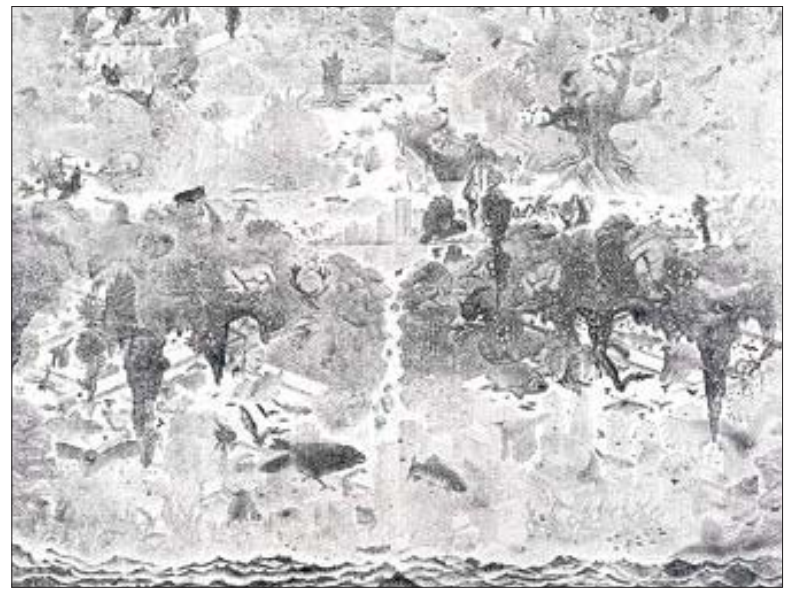
日 목판화의 대가 고바야시 관화전

7일부터 우제길미술관 워크숍·작가와 만남도

우제길 미술관이 오는 7일부터 17일까지 관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국제관화워크숍을 갖는다. 일본 관화의 대표작가인 고바야시 케이세이(63)씨가 참가하는 이 행사는 전시회(7~17일), 워크숍(9일), 작가와의 만남(10일) 등으로 진행된다.

고바야시씨는 일본 우드 인그레이빙(wood engraving)의 대가로, 우드 인그레이빙은 원하는 이미지를 가는 선으로 파내 잉크가 들끓된 부분에만 묻게 하는 목판화 기법이다.

일본 타마미술대학원 관화학과 교수인 고바야시씨는 목판화의 한계인 소품 위주 작업에서 벗어나 대형작업을 개척함과 동시에 고바야시씨의 독창적인 관화기법을 창안한 중견 작가다. 전시회에서 선보이는 작품은 자



고바야시 케이세이 작 '하얀아침'

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들을 관각한 것과 현대 문명사회를 반성적으로 돌아보고 인간과 자연의 일체감을 염원하는 작업들이다.

고바야시 케이세이씨는 9일 관화를 제작하는 워크숍을 갖고 작가와의 대화 시간을 갖는다. 문의 062-224-6600. /윤영기기자 penfoot@

동·서양 미술의 융화... 中 쉬정리 초대전

30일까지 함평 잠월미술관

함평 잠월미술관(관장 김광욱)은 오는 30일까지 중국 천진대학 예술디자인과 쉬정리(許正力) 교수를 초대, 전시회를 갖는다.

함평군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 쉬정리 교수는 중국의 전통화법을 바탕으로 서양의 입체회법과 추상적인 기법을 혼용한 '고전 여인', '꽃'연작 등 작품을 선보인다.

천진미술학원 중국화과를 졸업한 쉬정리 교수는 재료, 소재, 창작기법 등에서 새로운 화풍을 추구함으로써



기마타장지(騎馬打仗之)

동·서양미술의 융화를 추구하고 있는 작가다. 문의 017-601-6718.

미디어 교육 전문가 과정 개설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가 주최하고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가 주관하는 제2기 미디어 전문가 양성 교육이 9일부터 8월13일까지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린다.

지역 미디어 교육 교사 양성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미디어 교수법, 퍼블릭 액세스 개념과 방향 등 전반적인 이론부터 아비드 익스프레스프로 등 실기까지 포함한다.

이론 교육은 오후7시부터 2시간씩 모두 15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아비드 익스프레스프로 편집과정은 토·일요일 강의를 갖는다.

허경(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오정훈(미디어트 교육실장), 김광희(전남대 미디어교육연구소), 조수란(시청자미디어센터 교육팀장)씨 등이 강사로 나서 '청소년 미디어 교육의 이해'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현장 실천 사례', '장애인 미디어 교육' '공동체 라디오' 등에 대해 강의한다. 수강료는 무료. 문의 062-650-0336~7. /김미은기자 mekim@



광주시립합창단 '가곡과 아리아의 밤'

10일 광주문화예회관 소극장

광주시립합창단 '가곡과 아리아의 밤' 공연이 10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서는 소프라노 이윤정, 알토 장주은, 테너 한현국씨 등이 '내맘의 갈뿔',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

가씨' '고향' 푸치니의 오페라 '페도라' 중 '참을 수 없는 사랑' 등을 독창곡으로 들려준다.

또 합창곡으로는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사랑하면 할수록' '라 밤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사한다. 해설은 안소현씨. 문의 062-510-9343. /김미은기자 mekim@

movies Happy Time 영화안니

메가박스 구.런던약국사거리 1관 트랜스포머-디지털 (12세) 최고급편 2관 트랜스포머-디지털 (12세) 3관 검은집 (18세) 4관 오션스13 (12세) / 4.4.4. (18세) 5관 트랜스포머 (12세) 6관 택시4 (12세) 7관 디센트 (18세) 8관 9관 트랜스포머 (12세) 5월 1일부터 메가박스 데이 환인이 종료됩니다.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3시간 초과시 정산요금 부과 *무료팝콘 뷔페-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

엔터시네마 흥창로 5가 228-2700 1관 트랜스포머 (12세) 2관 4.4.4. (18세) 3관 검은집 (18세) 4관 오션스13 (12세) 5관 씨노아블 (18세) 6관 슈렉3 (전세) / 황진이 (15세) 7관 밀양 (15세) 금,토(2일간)심야상영 *자주식 동시 주차장 200대 <3시간 무료> *매주 금·토 심야 2,000원 합인!

컬럼버스시네마 상무점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미지 사이) 해남점 (무역회관 뒷편) 1관 오션스13 (12세) 2관 <아리아전용관> 열세살 수아 (12세) 3관 트랜스포머 (12세) 4관 트랜스포머 (12세) 5관 디센트 (18세) 6관 슈렉3 (전세) / 황진이 (15세) 7관 트랜스포머 (12세) 8관 택시4 (12세) 9관 검은집 (18세) 10관 트랜스포머 (12세) *호남 최대 주차장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1588-7941 컬럼버스해남점 (107번) 정리리 상영중

무등극장 흥창로 1가 232-9106 1관 디센트 (18세) 2관 택시4 (12세) 3관 트랜스포머 (12세) 4관 트랜스포머 (12세) 5관 트랜스포머 (12세) 6관 트랜스포머 (12세) 7관 슈렉3 (전세) 8관 오션스 13 (12세) 9관 검은집 (18세) *리버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협) 3시간 무료주차 *팀워크스 회원권을 위한 전용영구 미션 인터넷 예매 문의 1588-9101 *전화예약 가능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

제일시네마 흥창로 3가 AARS 전화예매 227-1960 1관 트랜스포머 (12세) 2관 트랜스포머 (12세) 3관 오션스13 (12세) 4관 검은집 (18세) 5관 4.4.4 (18세) 6관 슈렉3 (12세) / 캐리비안의 해적3 (12세) *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공짜!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세무소 옆 호남주차타워)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